

# 김정일 등장 이후의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변화 분석

윤 중 진\*

- |                            |                   |
|----------------------------|-------------------|
| I. 서 론                     | IV.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전망 |
| II. 교육 기저 정비를 통한 정치사상교양    | V. 결 론            |
| III. '교육과정안' 정비를 통한 정치사상교양 |                   |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Transformation of Kim Jong Il's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Policy

Kim Jong Il put it operation 'the policy of changing & opening' in the based on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The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of North Korean is composed of law system, educational system, and educational curriculum, school textbook amendment. The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aims to stability of regime, so this education under the control of

politics.

This analysis on the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of North Korean takes sides view of textbook composing, educational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 In this thesis, We studied which the point of North Korean educational policy implicated political aim, and political control aspects in middle-high school education.

**Key Words:** Kim Jong Il,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North Korean Textbook of middle-high school, educational curriculum, teaching method

\* 부산교육대 윤리교육과 강사

## I. 서 론

북한의 최고권력자로 김정일이 등장한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김정일은 여러 가지의 내우외환 속에서도 자신의 체제를 안정시키면서 나름대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를 펴왔다. 김정일은 1994년 ‘유혼통치’와 1998년 ‘강성대국론’과 같은 통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정치사상교양 강화 정책과 6·15 남북한 정상회담과 그 이후 남북한 협력의 확대, 2002년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 및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핵 6차 회담, 김정일의 소련 및 중국 방문 등 대남·대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변화·개방’<sup>1</sup> 정책을 함께 실시하였다. 이는 정치사상교양 정책을 통해 김정일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개방·변화’ 정책을 통해 경제 난국에서 벗어나 강성대국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면에는 김정일 체제의 안정이 김정일 등장 초기부터 실시한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북한 내부의 자신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에 있어 ‘변화·개방’ 정책은 기존의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북한 경제의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개인주의 풍조, 빈부 격차, 사회주의 사상 경시 등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게 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북한 사회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정도가 심화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북한 사회의 몰락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교육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정치사상의식과 함께 새로운 변화에 따른 ‘신사고’를 함께 지니라는 요구로 나타났다. 그것은 북한의 교육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교육 이념의 유지’와 더불어 ‘수단으로서 기술 인재 육성’ 곧

<sup>1</sup>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최대 과제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대외적인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를 권영경은 ‘제한적 개혁·개방 정책’ (권영경, “북한 경제의 현황과 개혁·개방 전망,” 『2004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04), p. 171), 박영규는 ‘통제된 개방 전략’ (박영규, 『김정일 정권의 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7), 박형중은 ‘적응과 개편’ (박형중,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실리사회주의론의 위치와 전망,”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91)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이 ‘개혁’보다는 현재 상황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개방’ 정책으로 본고에서는 ‘변화·개방’ 정책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사상성과 기술성을 함께 지니게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은 한편으로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안정을 위한 ‘정치사상교양’ 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사회체제의 변화를 위한 과학기술 교육, 정보통신 교육, 컴퓨터 교육 및 영재 교육 체제를 정비하고 강화하였다. 이는 정치사상교양 정책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변화·개방’ 정책의 접목을 나름대로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김정일 체제의 안정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데 어떤 형태로든 효과적으로 작용한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의 보완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체제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 정책 특히 ‘정치사상교양’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사회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지향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 등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동시에 나아가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줄 정책적 변화 및 그 과정에서 북한의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거나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치 의식 등을 파악 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정일 등장 이후에 실시한 북한의 정치사상교양 정책을 교육 기저의 정비와 교육과정안의 정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향후 북한의 정치사상교양 정책을 전망해 봄으로써 우리의 대책을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 기저 정비를 통한 정치사상교양에서는 교육 관련법과 교육 관련 체제를 통한 정치사상교양 정책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안’의 정비를 통한 정치사상교양에서는 정규 교과목과 교과서 체제 내용 변화를 통한 정치사상교양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향후 북한의 정치사상교양 정책을 예상해 보고자 한다.

## II. 교육 기저 정비를 통한 정치사상교양

### 1. 교육 관련 법 체제 정비

북한 사회주의 법 체제에서는 법 자체가 공산당 정책을 실현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당 중앙’의 영도 아래에서만 법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주체사상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sup>2</sup> 법 자체는 수령의 사상과 당 정책을 관

<sup>2</sup> “법은 전적으로 당의 정책을 실현하며 당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의 령도를 받지 않고서는 법을 옳게 집행할 수 없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1), p. 222.

철 한 것이기에 반드시 옳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이 법 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은 수령과 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행동이며, 법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1) ‘사회주의 헌법’ 개정

북한은 1949년에 헌법을 제정한 이후 1972년과 1992년의 전면 개정을 포함한 제7차 개정을 단행하였다. 현행 북한 헌법은 1998년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 개정 공포한 것으로 ‘사회주의 헌법’<sup>3</sup>이라고 한다. 이 법은 서문과 7장 166조로 구성되어 있다.<sup>4</sup> 이 가운데 교육과 관련이 되어있는 조항은 제3장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 13조문이다. 이 가운데 직접적 관련 조항은 제43조에서 제49조까지의 7개 조문이며, 간접적 관련 조항은 제39조에서 42조까지와 제50조, 제51조의 조문이다. 제 51조와 제 52조의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1992년 헌법과 1998년 헌법의 내용이 동일하다.<sup>5</sup>

특히 이 법의 ‘서문’에서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적 기원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시조(始祖)가 김일성이며, 북한 사회주의 이념의 기원은 “김일성 사상” 곧 주체사상에 있으며,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이전의 헌법들과 유사하게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과 관련된 북한

<sup>3</sup> 북한 헌법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다. 서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라고 명시하여 이 법이 ‘김일성헌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신보』, 1998년 9월 12일. 하지만 본고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한다.

<sup>4</sup> 이 법은 서문,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 기구(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회, 내각,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검찰소와 재판소), 제7장 국장·국기·국가·수도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up>5</sup> 북한의 1992년 헌법과 1998년 헌법에서 교육과 관련된 조항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제 51조와 제 55조가 약간 다르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제 51조에 관해서 1992년 헌법은 “…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시킨다.”라고 한 것을 1998년 헌법은 “…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로 하였으며, 제 55조에 관해서 1992년 헌법에서는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 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라고 한 것을 1998년 헌법에서는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로 수정하였을 뿐이다.

헌법의 내용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sup>6</sup>

첫째, 북한 교육헌법은 인간 개개인의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기본권의 보장보다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의 전면적인 개화 발전’을 교육의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국가사업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지니며, 국민은 이러한 교육을 받을 의무만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노동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하여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 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고,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 건설을 위하여 민족 문화 유산을 보호하되 그것을 사회주의 건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셋째,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무장을 통하여 주민들의 결속과 단합을 추구하며, 그 교육적 원리로 사회주의 교육학을 삼는다.

넷째, 교육 사업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시하여 사회주의 교육체제를 갖추되, 여기에 취학 전 1년을 포함하여 초·중·고 학교교육까지 11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순수이론 교육을 지양하고, 직업과 직결된 직업교육과 전문교육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헌법’은 국가의 주도로 학생들에게 사상, 기술, 노동을 삼위 일체 시키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직접 학생들에게 정치사상교육을 최우선하여 가르치는 한편 기술교육도 강화하여 사상성과 기술성을 함께 지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2) ‘사회주의 교육법’ 제정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과 함께 1999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sup>7</sup>을 제정하였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1977년 9월 5일 김일성에 의해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sup>8</sup>가 교육에 관한 기본 방침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sup>6</sup> 한만길·박재윤·정영순·한승희, 『북한 교육 관계 법령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p. 37.

<sup>7</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제1장 ‘교육법의 기본’, 제2장 ‘전반적 무료 의무교육제도’,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제4장 ‘교육 내용과 방법’, 제5장 ‘교육조건에의 보장’,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모두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교육법’이라 한다. 위의 책, pp. 174-178.

<sup>8</sup>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전문,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 교육 내용(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깨우쳐주는 교수 교양, 리론교육과 실천교육·교육과 생산의 결합,

이전의 ‘테제’와 새로 제정된 ‘교육법’을 비교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법’에서는 북한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이다(3조) ... 주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주체교육체계를 바로 세워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6조).<sup>9</sup>

이는 ‘사회주의 헌법’ 제 43조와 ‘테제’에서 제시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구체화한 것이다.<sup>10</sup> 법조문상으로는 지육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치사상 교육 우선 원칙에 따라 덕육을 중시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사상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법’은 북한의 교육 목표가 학생들을 주체 사상, 과학기술 그리고 건강한 체력을 가진 인재 곧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노동 기술력과 노동력을 지닌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을 길러 내는데 있음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 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sup>11</sup>

---

조직생활·사회정치활동의 강화, 학교교육과 사회, 학교전 교육·학교교육·성인교육의 병진),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제도(전반적 의무교육 제도, 전반적 무료교육제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제도, 국가적 어린이 보육 교양제도),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학교의 사명과 임무, 교원의 위치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사회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하 ‘테제’라 한다.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학론』 (서울: 박영사, 1995), pp. 213-255 참고.

<sup>9</sup> 「교육법」, 제1장 제3조, 제6조.

<sup>10</sup>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법』 제정에 대한 의의에 관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들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사회 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최근 내각에서는 교육법 시행규칙을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 하였습니다. 규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사회주의 교육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며 교육법의 요구대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보다 힘있는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민주조선』, 2000년 2월 27일.

<sup>11</sup> 「교육법」, 제4장 제29조.

이는 교육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동시에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 기관들은 내용적으로는 학생들이 북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상과 도덕, 지식, 체력과 정서를 지닐 수 있는 내용으로, 방법적으로는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 예능교육 순으로 중점을 두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교육 방법적 원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교육과 실천의 결합’ 곧 ‘교육과 노동의 결합 원칙’이다. ‘사회주의 교육법’에서는 이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것은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교육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이익에 맞게 하며 교육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하도록 한다.<sup>12</sup>

‘테제’에서는 이 방법을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의 산지식을 길러주는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 것은 쓸모있는 산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이다 ... 학교교육에서 특히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생들의 생산로동은 교육교양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활동이며 사회주의건설에 직접 이바지하는 혁명 활동이다.<sup>13</sup>

궁극적으로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노동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 곧 노동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정치사상교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노동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적응하는 시간을 줄여 곧바로 노동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깨우쳐주는 방법의 원칙’이다. ‘사회주의 교육법’에서는 이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sup>12</sup> 「교육법」, 제1장 제4조.

<sup>13</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교육일군은 학생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교양을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sup>14</sup>

그 방법이 ‘깨우쳐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테제’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기본형태는 교수이며, 교수의 기본방법은 깨우쳐주는 교수이다 ... 우리들의 학교들에서는 반드시 모든 과목의 교수를 깨우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깨우쳐주는 교수에서는 ... 이야기와 담화의 형식으로 설명 ... 문답식 방법 ... 직관교육, 실물교육 ... 해설과 설복 ...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것은 사상교양의 기본방법의 하나이다.<sup>15</sup>

이는 ‘깨우쳐주는 방법’이 학교교육에서 가장 기본형태의 기본방법이기에, 모든 교육에서 이야기와 설명, 문답, 직관교육과 실물교육, 해설과 설복, 긍정적 감화 등의 방법 등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학생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단계적 방법의 원칙’이다. ‘사회주의 교육법’에서는 이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교육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그것을 높은 교육단계로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시켜야 한다.<sup>16</sup>

이와 관련하여 ‘테제’에서는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특징과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학교전 교육은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교양의 첫 공정이다 ... 유치원교육은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직관물과 실물을 통한 수업, 노래와 춤, 놀이를 통한 교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잘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교육이다 ... 학교교육의 기본과업은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서고 현대적 과학기술을 가진 혁명인재여 키우는 것이다 ... 성인교육은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다 ... 성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수준이 각이한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의 성인교육체계에 망라하여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적으로 재교육하는 것과 함께 ... 토요일학습, 수요강연회에 빠

<sup>14</sup> 「교육법」, 제4장 제30조.

<sup>15</sup>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sup>16</sup> 「교육법」, 제4장 제31조.



집없이 참가하며 매일 2시간학습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sup>17</sup>

이 방법은 아무리 좋은 교육 내용 및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가르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나이와 수준에 맞춘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넷째, ‘중앙집권적 방법의 원칙’이다. ‘사회주의 교육법’에서는 이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강령에 반영한다.<sup>18</sup>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작성한다.<sup>19</sup>

국가는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교육 기관에 비상설심의위원회를 둔다. 해당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교육강령과 교과서를 고칠 수 없다.<sup>20</sup>

이는 모든 교육이 국가의 관리 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테제’에서는 ‘학교의 사명과 임무’와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통해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는 혁명화의 본거지이며 문화혁명의 거점이다. 학교는 교수교양사업을 통하여 사상혁명, 문화혁명 수행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학교안에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엄격한 교육규률을 세워야 한다.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 혁명적인 규율을 세우고 과정인, 교수요강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 당조직들은 교육행정기관들의 사업을 잘 지도하여야 한다 ... 교원들 속에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며 사상교양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 ... 학교 조직사상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단련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sup>21</sup>

모든 교사들은 국가가 설정한 교수안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가르쳐서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정한 내

<sup>17</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sup>18</sup> 「교육법」, 제4장 제32조.

<sup>19</sup> 「교육법」, 제4장 제33조.

<sup>20</sup> 「교육법」, 제4장 제34조.

<sup>21</sup>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용을 교사가 중심이 되어 확일적으로 잘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처럼 ‘테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관련 내용들이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기본 문제들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22</sup> ‘테제’가 강령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에서 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으나, ‘교육법’은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공식적 법제화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그리고 ‘교육법’이 ‘테제’에서의 강령적 제반 지침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아 ‘교육법’ 역시 정치사상교양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교육 관련 체제 정비

### 1) 학교명(名) 변경

북한은 학생의 혁명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혁명투사들의 혁명정신과 혁명활동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하여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이름을 혁명투사들의 이름으로 개칭하는 학교명 변경 사업을 벌여왔다.<sup>23</sup> 이 사업에 대해 『로동신문』은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영웅들의 뒤를 이어 수백 수천의 총폭탄 영웅이 자라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자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영웅이란 주로 6·25 전쟁 중에 공훈을 세웠거나 북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이다. 예를 들면 김성주, 조옥희, 김광철 등과 같은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모교의 교명을 김성주인민학교, 조옥희고등중학교, 김광철고등중학교로 개칭하였다.<sup>24</sup> 학교명이 개칭된 이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들에 대해서는 ‘영웅’들의 모교로서 “당과 수령에 대한 영웅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무비의 희생정신을 신념으로 간직

<sup>22</sup> 다만 「교육법」 제8조에서 “은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전망과업이다.” 제10조 “국가는 해외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권리를 적극 옹호한다”라는 규정은 ‘테제’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정이다. 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북한 사회의 개방과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만길·박재윤·정영순·한승희, 『북한 교육 관계 법령 연구』, pp. 56-65 참고.

<sup>23</sup> 북한 언론 매체들은 2002년 9월부터 인민학교는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통일부, “알기 쉬운 북한”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04년 8월 17일). 하지만 본고에서는 2002년판 교과서 표기에 따라 인민학교, 고등중학교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sup>24</sup> 이렇게 해서 이름이 바뀐 학교를 소위 ‘공화국 영웅의 이름으로 명명된 학교’ 또는 ‘새로 이름을 고친 학교’로 기술하고 있다. 1994년 4개, 1995년 5개, 1996년 9개, 1997년 9개, 1998년 2개, 1999년 2개, 2000년 2개, 2001년 1개, 2002년 2개, 2003년 5개교가 이름을 고쳤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5~2003』, 교육부문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5~2003).

한 미더운 새세대들이 자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김정숙 형, 이수복 형, 길영조 형의 인간이 되기 위해 학교명에 제시된 모든 형(形)의 인간들을 ‘따라 배우기’를 실천하도록 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선배들이 김일성을 믿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듯이, 그들 자신들도 김정일을 믿고 그를 위해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선배들이 김일성에 한 것처럼 김정일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다.

## 2) 영재 교육 체제 정비

북한의 특수교육은 특수층 교육과 재능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사회주의 혁명의 후계자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며, 후자는 예술·과학 등 분야별로 소질이 뛰어난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여 엘리트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sup>25</sup>

평양 제 1고등중학교를 영재를 배양하는 기지로 만드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 가장 우수한 노동 인민의 자녀를 선발하여 입학시키면 우리 인민들은 당의 인민성의 교육 정책을 더욱 더 깊이 있게 이해할 것이고 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다.<sup>26</sup>

이러한 교육 체제에 대해 북한은 1983년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시작한지 17년만인 2000년에 제1고등중학교 체제를 완성하였다고 밝히고, 그 의의에 대해 『로동신문』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도”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체제의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sup>27</sup>

<sup>25</sup> 특수층 교육은 항일유자녀, 당과 군 그리고 정부의 고위관련 자녀들을 만경대혁명학원(남자), 남포혁명학원(남녀공학), 강반석 유자녀학원(여자) 등에 입학시켜 군사간부, 정치간부, 여성간부 등으로 양성하고 있다. 한편 재능교육은 예능 분야, 과학 분야, 외국어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예능교육은 소질이 있는 아동들을 각 도 예술대학의 인민학교·고등중학교 과정(평양의 경우 금성고등중학교)에, 과학 분야는 신분에 관계없이 각 도의 제1고등중학교와 6년제 대학과정(평양이과대학)에, 외국어 분야는 성적과 출신성분을 고려하여 각 도의 외국어학원과 6년제 대학 과정(평양 외국어 대학)에 입학시켜 교육을 실시한다.

<sup>26</sup> 김정일,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견본으로 만드는 것에 관하여,” 『과학교육사업 발전에 관하여』(평양: 북한노동당출판사, 1999), p. 78; 손계립,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수재-엘리트’ 교육체제,” 『북한학연구』, 창간호 (2000), p. 212에서 재인용.

<sup>27</sup> ‘1고등교육체제는 모든 군(郡)이나 구(區)에 제1고등중학교 설립하는 것으로, 평양의 경우 그 특성상 ‘모란봉 제1고등중학교’를 비롯한 ‘동평양 제1고등중학교’, ‘창덕고등중학교’를 설립하였

북한에 이처럼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과 발전, 곧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성과 사상성을 지닌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함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재들은 보통의 청소년들과 달리 당과 집단의 정책과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수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과학 기술 뿐만 아니라 수령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깊어 사상성에서도 더 뛰어날 것이라는 가정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영재교육체제 역시 궁극적으로는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전개하여 가는데 있어 요구되는 기술성과 사상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것으로 기술 기능 교육과 함께 정치사상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함인 것이다.

### Ⅲ. ‘교육과정안’을 통한 정치사상교양

#### 1. 교과명 변경 · 신설

김정일 등장 이후 1996년에 ‘교육과정안’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을 통하여 김일성·김정일 관련 교과명을 변경하고, 김정숙 관련 교과와 컴퓨터와 같은 교과를 정규교과로 신설하였다.<sup>28</sup>

##### 1) 김일성·김정일 관련 교과명의 변경

김일성 관련 교과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인민학교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고등중학교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교과가 있었다. 그것이 개정 후 인민학교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고등중학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교과로 변경되

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에서는 “전국 1고중 교육체계는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로동신문』, 1999년 4월 1일.

<sup>28</sup> 1994년에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도덕과목 교수내용을 새로 보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5』, p. 171; 1995년에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정치사상과목의 비중을 늘리고 교육내용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으로 일관되고 현대 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학제별, 교육형태별에 따라 개편”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6』, p. 221.

었다. 수식어가 바뀐 것이다. 즉 ‘경애하는’이 ‘위대한’으로, ‘원수님’이 ‘대원수님’이라는 극존칭의 수식어가 사용된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초 김정일이 공화국의 원수에 추대되고 그에 따라 김일성이 자연히 대원수로 승급되었기 때문에 교과명 역시 거기에 맞추어 변경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김일성이 북한의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임을 직접적 반복적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김정일 관련 교과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인민학교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시절』, 고등중학교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교과가 있었다. 그것이 개정 후 인민학교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고등중학교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교과로 변경되었다.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수식어가 바뀐 것이다. 즉 ‘친애하는’이 ‘위대한’, ‘동지’는 ‘원수님’, ‘지도자’는 ‘령도자’로 개칭되었다. 이는 생전의 김일성에게 사용하던 수식어이다. 그리고 김일성과 같은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김정일이 생전의 김일성과 같은 위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김일성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높은 존재이며, 김정일은 생전의 김일성과 같은 위치에 있는 현재적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2) 김정숙 관련 교과의 신설

북한은 김정일은 자신의 생모인 김정숙과 관련된 교과와 컴퓨터 과목을 신규 교과로 신설하였다. 김정숙 관련 교과를 살펴보면, 인민학교에는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고등중학교에는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교과이다.<sup>29</sup> 이들 교과는 인민학교 전학년에서 주당 1시간, 고등중학교에서는 4, 5, 6학년에 주당 1시간씩 배정되어 실시되고 있다.<sup>30</sup> 이들 교과의 주요 내용은 김정숙의 탄생부터 사망까지 한사람의 여자, 김정일의 어머니, 김일성의 부인 그리고 혁명투사로서의 모범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김정숙은 어려서부터 자상하고 영리하고 강한 혁명심을 가졌으며, 여자의 몸으로 김일성이 제시한대로 혁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김일성을 위해서

<sup>29</sup> 량인옥 외,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어린시절 인민학교 4』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8); 강홍수 외,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혁명력사 고등중학교』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9).

<sup>30</sup> 고성호,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 『2004 북한이해』, pp. 193-211.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일이라는 인물을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명에도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숙은 모두 위대한 사람으로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 일가 모두의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활동을 학생들은 그대로 본받고 따라야 하는데, 특히 북한의 여성들은 김정숙의 모범적인 행동을 우선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김일성 일가가 학생들에게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초석이며, 그들 자체가 북한의 이념이자 역사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 교과는 고등중학교에 4~6학년에서 주당 2시간씩 신설하였다.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급변하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변화·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2. 교과서 수정·보완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 김일성 일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과서의 체제 및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sup>31</sup>

### 1) 교과서 체제 수정·보완

#### (1) 주체연호 표기

북한은 1997년 7월 8일 공동결정서를 통해 “주체 연호”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sup>32</sup> 따라서 1998년 이후에 간행된 교과서부터 소위 ‘주체력’이라는 표기가 등장하였다. 이는 김일성의 출생 년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연도를 표기하는 북한식 연도표기법으로 각종 문서, 증명서, 유가증권, 출판보도물, 상표, 우표 등과 건축물, 기념물, 설비 등을 비롯한 연도를 표기하는 모든 대상에 “주체연호”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1894년 7월 10에 출생 …” 또는 “주체55(1966)부터는 …”으로 표

<sup>31</sup> 『조선중앙년감』 1995년판에서는 1994년에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도덕과목 교수내용을 새로 보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5』, p. 171.

<sup>32</sup> 이 결정서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이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로동신문』, 1997년 7월 10일.

기하고 있다. 김일성이 탄생한 1912년을 기준으로 주체연호를 먼저 쓰고 서기연호를 괄호 안에 쓰거나 주체연호 만을 단독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학생들에게 북한의 시작이 역사적으로 김일성의 탄생, 이념적으로는 주체 사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모든 시작이 김일성에게 있음으로 그에 대한 지속적이고 영원한 충성심은 당연한 것이며,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기에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2) 교과서 체제 수정

김정일 등장 이후 교과서의 체제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출판된 교과서의 체제 구성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공산주의 도덕』<sup>33</sup> 교과서를 통하여 그 변화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 체제 비교

학교급 및 학년	출판년도	1995~1996출판 교과서	2002년 출판 교과서
인민학교	1	· 과 · 본문	· 과 · 본문
	2		
	3		
	4		
고등중학교	1	· 과 · 본문	· 과 · 본문
	2		
	3		
	4	(차례) · 장 · 절 · 본문 · 복습문제	(차례, 머리말) · 장 · 절 · 본문 · 김일성 교시, 김정일 명언 (4, 5, 6) · 복습문제 · 과의읽기
	5		
	6		

<sup>33</sup> 2004년에 『공산주의 도덕』이 『사회주의 도덕』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북한의 현재가 공산주의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사회주의 단계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단계에 어울리는 도덕을 가르치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학교명칭 역시 공산주의 단계의 ‘인민’학교에서 사회주의 단계의 ‘소’학교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지금 단계의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노력하여 공산주의 단계로 가자는 것을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차우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p. 5. 하지만 본고에서는 『공산주의 도덕』교과서를 분석하였기에 교과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1>에서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 출판된 교과서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1~3학년에서는 ‘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문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고등중학교 4~6학년은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절에는 본문과 함께 ‘복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 출판된 고등중학교 4, 5, 6학년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형태와 많은 변화가 있다.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머리말’, ‘과외읽기’, ‘김일성 교시’ 그리고 ‘김정일 명언’ 등이 새롭게 구성되어 있다.<sup>34</sup> 특히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명언’ 등에서는 그들이 언급한 지시나 말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과외읽기’에서는 김일성 일가나 소위 영웅들의 모범적인 이야기를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한 것이다.

## 2) 김정일 관련 내용 강화

북한의 경우 모든 것에 최고권력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교과서에서 굵은 활자로 된 이름은 교과 내용의 핵심이다. 그러한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교과가 『공산주의 도덕』이다. 이 교과는 김일성·김정일 관련 교과가 최고권력자 개인에 국한된 내용으로 구성된 까닭에 이론적 취약성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일상 생활의 덕목, 예절, 가치 규범을 비롯해서 인간관, 세계관, 도덕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 체제가 정착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일도덕 체제의 확립의 필요성에 의해 끊임없이 중요한 교과목으로 인정받아 왔다. 최근에 발행된 『공산주의 도덕』교과서의 과나 절에 등장하는 김일성 일가의 이름 비율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sup>34</sup> 김일성에 대해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 김정일에 대해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이라 표기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수식어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 2>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 등장하는 김일성 일가의 이름<sup>35</sup>

학교급 및 학년	핵심인물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비 고
인민학교	1	4	7	1	
	2	7	9	.	
	3	6	10	1	
	4	10	12	.	
	계	27(40.3%)	38(56.7%)	2(3.0%)	
고등중학교	1	14	15(1)	.	김정일을 '광명성'이라 언급함.
	2	7	25	.	
	3	7	31	.	
	4	4	21	.	과외읽기(김일성2, 김정일3, 김정숙3)명언(김일성3, 김정일17)
	5	9	27	.	과외읽기(김일성1, 김정일1) 명언(김정일15)
	6	8	10	.	과외읽기(김일성7, 김정일5) 명언(김일성10, 김정일10)
	계	48(27.9%)	124(62.1%)	.	
합 계	75(31.4%)	162(67.8%)	2(0.8%)		

<표 2>에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인민학교에서는 김일성 38(56.0%), 김정일 27(40.0%), 김정숙 2(4.0%)이다. 고등중학교에서는 김일성 48(27.9%), 김정일 124(62.1%), 김정숙 0(0.0%)이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모두 김정일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김일성 75(31.4%), 김정일 (67.8%), 김정숙 2(0.8%)이다.<sup>36</sup> 전체적으로 김정일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학년별로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1학년과 6학년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2배 미만이 등장하는 반면 나머지 학년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 이는 김정일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시기의 학생들에게 비중을 두어 강조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sup>35</sup> 김완선 외, 『공산주의 도덕 인민학교 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김완선 외, 『공산주의 도덕 인민학교 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김룡택 외, 『공산주의 도덕 인민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김룡택 외, 『공산주의 도덕 인민학교 4』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김영식 외,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고수길 외,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한상유 외,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김완선 외,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4』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김완선 외,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5』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김완선 외,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sup>36</sup> 고등중학교 1학년 제11과 '국화나무 앞에서'에서는 김정일을 지칭하는 '광명성'이라는 말이 등장하였다.

인식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서 김일성보다 김정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기술함으로써 김정일이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7</sup>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를 통한 정치사상교양은 교과서의 내용 분량은 축소하면서, 교과서 체제면에서 ‘과외읽기’, ‘명언’, ‘교시’ 등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김일성 일가 및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가운데 김정일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시킴으로써 김정일이 현재 북한의 최고 권력자임을 다시한번 더 강조하고 있다.

#### IV.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전망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과 함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물려받았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김정일은 집권 초기부터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집중적인 정치사상교양 정책을 실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존경하는 인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선 성인들은 “민족 해방의 영웅” 학생들은 “절대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표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sup>38</sup> 이는 김정일 등장 이후 실시해 온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은 김정일로 하여금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게끔 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 요구 및 ‘7·1 경제관리개선조치’,<sup>39</sup> 남북경협 활성화와 같은 ‘변화·개방’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북한의 2002년 경제성장률이 1.2%, 2003년 1.8% 성장하였으

<sup>37</sup> 논자가 통일교육원 연수 중(2004.9.13~15) 소학교 교사 출신의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에서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교육은 ‘당 중앙’에서 내려오는 ‘계급 교양 자료’에 의해서만 진행되며, 모든 수업은 시작 10분 동안 의무적으로 정치사상교양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의 결과는 교사를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된다고 하였다.(2004.9.13. 대화)

<sup>38</sup> 한만길 외, 『북한 교육의 현실과 변화』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4) 참고.

<sup>39</sup>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2002년 7월 1일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을 본떠 도입한 실리 중심의 협력조치로 북한 사회를 국가보상제에서 시장제도로, 국영상점의 사영화, 정액현물 배급제에서 노동임금제로 변화시켰다. 서재진, “김정일 정권 10년 - 북한의 사회변화 -,”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학술회의 총서 04-01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201-211.

며, 2004년에는 식량 사정이 호전되는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변화·개방’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인 것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북한이 정치사상교양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 ‘변화·개방’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는 북한이 결코 바라지 않는 이분법적 계급의식 발달,<sup>40</sup> 개인주의적 경향<sup>41</sup>과 사회불평등의 심화, 계급간의 갈등 심화<sup>42</sup> 및 빈부격차 등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그것은 기존 북한 사회를 뒤흔들 수도 있는 주목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는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후계자 역시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준비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sup>43</sup> 북한 주민들에게 후계자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정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에 따른 정치사상교양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 북핵 6자 회담 및 북·미관계의 경직화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위기의 식들 고취시켜 정치사상교양 정책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래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해 각급 학교의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성에서는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대성 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정치사상교양에 더 큰 힘을 넣을 계획<sup>44</sup>

아울러 ‘자본주의 풍조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치자’, ‘우리식대로 살아 나

<sup>40</sup> Yanqi Tong, “Mass Alienation Under State Socialism and After,” *Communist and Post-Communist*, Vol. 28, No. 2, pp. 215-218.

<sup>41</sup> John Harsanyi, “Advances in Understanding Rational Behavior,” in Jon Eleter (ed.), *Rational Cho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sup>42</sup> 서재진, 『김정일 정권 10년 - 북한의 사회변화 -』, pp. 211-241.

<sup>43</sup>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05년 노동당 창건 60주년에 김정일의 후계자가 발표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는 ‘전 사회의 선군사상화’ 고영희는 ‘평양의 어머니’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을 ‘금성대장’으로 부르는 등 후계구도와 관련된 일련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이 1974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되었을 때는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 김정숙은 ‘혁명의 어머니’ 김정일은 ‘광명성’으로 지칭되었다. 『日經新聞』 2000년 7월 8일; 『조선일보』, 2004년 7월 12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응립했던 월로그룹이 김 위원장의 후계지명을 조연하고 있다고 일본 소식통들이 10월 13일 전했다” <<http://ucc.media.daum.net>> (검색일: 2004년 10월 13일); 정성장,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후계 문제』 (성남: 세종문제연구소, 2004), pp. 16-32 참고.

<sup>44</sup> 『로동신문』, 2003년 1월 7일.

가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의 구호와 함께 언론 출판 매체들은 '주체사상이론선전부'(노동신문사), '공산주의교양부'(민주조선사) 등의 부서를 신설하고 사상과 관련된 기사의 비중을 높인 것이다.<sup>45</sup>

이처럼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하여 정치사상교양 정책과 '변화·개방'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어느 한쪽만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보다는 대내외적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상호보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한은 '북한 체제의 보존'과 '김정일 정권의 유지'<sup>46</sup>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기에 당분간은 '변화·개방' 정책으로 인한 정신적 해이와 대내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사상교양 정책에 비중을 두면서 점진적으로는 '변화·개방' 정책도 함께 전개하리라고 예상된다.<sup>47</sup>

## V. 결 론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과 함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물려받았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김정일은 집권 초기에는 정치사상교양 강화 정책을 실시해 왔다.

첫째, 법 체제 정비를 통해 정치사상교양을 법적으로 체계화하고 공식화시켰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법은 당의 의지를 관철한 것이고, 법을 지키는 것은 당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기에 '집단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둘째, 교육 체제의 정비를 통해 졸업생 영웅의 이름으로 학교명을 개칭하고, 영재 교육 체제를 정비하였다. 전자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선배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따라하라는 것이며, 후자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고급 기술과 인력을 길러내기 위함이다. 특히 영재들은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사상성도 뛰어나 우수하게 보답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상성을 바탕으로 두면서 기술성도 함께 지니라는 요구라고

<sup>45</sup>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연합뉴스, "<김정일 10년> '바뀌' 열풍과 반작용" <www.yahoo.co.kr> (검색일: 2000년 8월 10일).

<sup>46</sup> 정성장·백학순,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성남: 세종문제연구소, 2004) 참고.

<sup>47</sup> 2004년 북핵 6자 회담 및 남북 당국자 회담 등이 난관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10월 12일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규정』 등을 발표하여 '변화·개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안’의 개정을 통한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실시이다. 북한은 ‘교육과정안’의 개편을 통해 교과명을 바꾸고, 김정숙 관련 교과를 신설하였다. 김일성 관련 교과명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을, 김정일 관련 교과명에서는 ‘위대한’, ‘원수님’, ‘령도자’를 사용하였다. 생전에 김일성에게 사용하던 수식어를 김정일에게 사용함으로써, 김정일을 김일성과 같은 위치에 두었다. 나아가 김정숙 관련 교과를 신설하면서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김일성 일가 자체가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들 일가의 장기 집권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교과서 체제 개편을 통한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실시이다.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서 살펴보았듯이, 교과서의 전반적인 체제를 개편하여 교과서 내용 기술(記述)에서 연도를 ‘주체연호’를 병기하고,<sup>48</sup> 김정일에 관련된 내용의 비중을 높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청소년들은 북한의 뿌리가 주체사상 곧 김일성에게 있으며, 그를 이어받은 김정일은 오늘날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 권력자임을 당연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북한은 김정일 등장 이후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집중적인 정치사상교양 정책을 실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로 인식하게 되어,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가져왔다.<sup>49</sup> 이를 바탕으로 작금의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변화·개방’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각각의 장점이 상대의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이 각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만 체제 안정을 위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확신이 더 깊어진다면 협력·개방 정책이, 반대

<sup>48</sup> 『조선말대사전』은 연호를 “군주제도하에서 임금에 오른 해부터 물러난 해까지의 기간에 붙이는 연대적인 칭호”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연호 제정으로 인해 북한을 권력의 세습과 사인화 곧 ‘봉건전제국가’라는 비판이 일자, ‘김일성=김정일’ ‘김정일=후계자’ 따라서 ‘김일성=후계자’라는 ‘수령론’과 ‘후계자론’으로 이를 반박하고 있다. 곧 수령과 후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권력의 세습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교덕, 『북한의 후계자론』 (서울: 통일연구원, 2003); 통일부, 『김정일연구(II): 분야별 사상과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25-42 참고.

<sup>49</sup> 2000년과 2003년에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에서 자신들은 북한에 있을 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처럼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신으로 알고 지냈으며, 다만 1996년 이후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정치사상교양을 통해 배운 내용과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면서부터 그런 생각에 회의의 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로 그 자신감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면 정치사상교양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사이에서 이루어질 대화와 교류 협력의 창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

<sup>50</sup>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이후 2004년 8월말까지 남북한은 119회의 회담과 92건의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통일부, “숫자로 본 남북관계”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04년 9월 7일).